

Tim Gombis 박사 , 갈라디아서, 세션 6, 갈라디아서 4:1-5:1

© 2024 팀 고펀비스 (Tim Gombis)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이것은 Tim Gombis 박사와 갈라디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서 4:1-5:1의 6번째 세션입니다.

갈라디아서 여섯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갈라디아서 4.1절부터 5.1절까지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복잡하고 난해한 주장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모든 배움과 교육,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성경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반대자들과 함께 이 모든 주장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4장에서 갈라디아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할 것입니다. 그 권고 중 첫 번째는 넷째, 하나부터 열한까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의 청중에게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노예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묵시적인 맥락, 즉 바울의 묵시적인 신학을 염두에 두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바울은 우주를 가로질러 펼쳐진 캔버스 위에서 신학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시대, 옛 시대, 새 시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우주적 힘, 즉 하나님의 세계를 감염시킨 죄와 죽음과 육신의 우주적 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묵시적인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담한 판단이나 말탄 자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지만 땅에서의 활동과 하늘에서의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종의 종말론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장식하는 방식과 관련된 물리적 영역에서의 활동. 그들의 몸을 유대인의 몸처럼 치장해야 합니까? 그래서 물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와 육체와 죽음과 우주의 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바울이 말한 우주적 현실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현실을 바꾸셨고 성령의 설정으로 영적 영역의 게임을 완전히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영역으로 구현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청중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민족을 바꾸지 않고도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이나 신실함을 바침으로써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영역의 현실은 영적 영역에서 진행된 온갖 종류의 현실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바울 신학의 묵시적인 범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이 드라마가 지상 무대와 영적 영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바울의 논증은 일부 묵시적인 요소에 달려 있으며, 이 내용은 4장 3절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종노릇을 했습니다. .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어 스토이 케이아(stoicheia) 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매우 전략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9절에도 이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노릇 하려 함이니까?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8절에 또 다른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스토이케이아(stoicheia) 또는 바울이 말하는 바는 신이 아닌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바울의 묵시 신학에서 전략적인 역할을 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구약의 사물에 대한 개념에 따르면, 유대인 본문에 나오는 나라의 천사나 나라의 신은 때때로 나라의 천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욥기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서 10장에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왕자와 그리스 왕자가 그곳에 등장합니다. 사물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관점을 기억하십시오. 아니면 사물에 대한 구약의 관점, 구약의 기대, 유대인의 기대를 말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현재의 악한 시대가 있었고, 이 모든 천사장 통치자나 열방의 신들, 하나님의 세계를 거시적으로 감독하는 영적 존재들이 주관하는 시대였습니다.

복음서의 페이지에서 종종 개인의 몸을 감염시키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억압하거나 노예로 삼거나 거주하는 악마나 영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국가의 삶을 감독하면서 일종의 거시적 수준에서 일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영적 실체입니다. 그들은 문화의 본질을 감독합니다.

그들은 문화적 패턴과 문화적 가정을 감독합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의 수효에 따라 이들 인물의 수를 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위에 하나님은 이 인물 중 한 사람, 즉 나라의 신이나 나라의 천사를 임명하여 그 나라의 생활을 조직하고 감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물 개념에 따르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삶을 감독하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타락과는 별개로 종종 중보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인류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은 또한 이러한 천사장 통치자 인물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이러한 나라들의 신들을 통해 자신의 창조의 더 큰 요소들을 감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글썄, 유대 전통에 따르면 대부분 또는 대부분의 대천사 통치자 인물, 국가의 신, 또는 바울이 여기서 두 번 부르는

스토이케아 라고 불리는 일부 유대인 텍스트에서 이러한 인물은 반란을 일으켰고 지금 그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이들은 창조물을 노예로 삼는 인물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이 다니엘서에 반영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의 삶을 눈여겨보고 그 민족이 우상 숭배의 노예로 잡혀 있는 국가적 삶을 누리는 것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이 바로 국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대천사 중 한 사람이나 이들 중 한 사람, 말하자면 그 나라의 신에 의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서 잘못된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전체가 있고, 그 나라를 감독하는 우상이 있다는 거짓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 뒤에, 그 우상 뒤에는 실제로 이러한 신적인 인물 중 하나, 즉 그 나라의 생명을 다스리도록 임명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주적 차원에서 현재 악한 시대의 삶을 상상할 때, 이것이 바로 그가 그것을 현재 악한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상상한 것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서서 신의 통치에 맞서 함께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상황을 구성하는 방법은 이것이고, 이것이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신학하는 방법이며, 제 생각에는 유대교와 모세 율법에 대한 또 다른 사고 방식입니다.

이런 시대, 노예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보내주셨고,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예화된 우주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유대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학적 비전에서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열방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그분의 사랑 안으로 이끄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악의 천재 중 하나, 현 악한 시대의 천재 중 하나는 선을 위해 의도된 모든 것이 일종의 뒤틀리고 변하고 조작되고 선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억압적이고 파괴적인 종말. 바울의 신학적 비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의도하신 구별, 그 구별, 그리고 구별이 있을 의도가 있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구별은 이스라엘이 열방을 만나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 위한 경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구별은 이스라엘과 나라들 사이에 적대감이 커지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도래한 이후, 이 악한 현 시대를 회고하면서 유대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현 악한 시대에 의해 더 많이 형성된 현실임을 본다. 그러므로 그가 돌이켜 스티케라 와 천성적으로 신이 아닌 자들의 노예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유대교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이크 율법과 이스라엘의 창조가 고칠 수 없었던 시대를 다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속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주적 차원이었습니다. 우주는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율법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야 했고, 이 시대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만 일종의 파괴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한다면, 단순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구원에 대해 생각한다면 유대교와 복음, 율법과 복음, 모자이크, 모자이크 행정과 복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것들이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관점으로 전환하기 전에, 개인의 관점에서 삶을 신학하기 전에 우주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우고 같은

종류의 현실을 나타내는 약간 다른 이미지로 작업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이 두 시대, 현악한 시대, 시대의 교차, 그리고 종말론적 미래에 하나님 나라로 변모할 무대인 새 창조를 가져온 십자가에 대해 말씀드렸고,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이런 종류의 시대 교차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울의 신학에서 그는 기본적으로 이 시대, 현재의 악한 시대를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고 인류를 노예화하기 위해 일하는 우주 통치자들이 감독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제 이 시대 전체가 십자가로 인해 이 우주적 현실 전체가 멸망으로 내려가고 멸망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멸망을 거두게 됩니다. 영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왜냐하면 여기서 태도와 행위에 투자하는 공동체는 무너지면 이 시대와 함께 무너지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투자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는 그 보상, 곧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영적 존재들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멸망이 보장된 시대이다. 여기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바울이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취하기 위해 이 현실에 의해 구성된 그들의 정체성과 행동을 강요해야 하는 반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방향을 바꾸고 현 악한 시대를 주관하는 시대나 영적 존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의 경우, 즉 바울은 유대교 자체가 노예화하는 역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 자체가 노예를 만드는 역동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 즉 이방인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민족을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는 것은 실제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어떤 사람이 서부 미국 기독교인으로서 포르투갈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상속받고 거주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미국 여권. 민족을 바꾸고 7월 4일을 축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포르투갈 정체성을 미루고,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고, 이 모든 새로운 습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그런 일을 하고 더 이상 낮잠을 자지 마세요. 모든 문화적 습관을 제쳐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민족이 되어 전체 국제 질서에 의해 영광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노예화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다민족, 다국적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의 음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교향곡이 되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가 아닌 모든 나라의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으로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우주적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듯이 상속자가 어린아이인 한 그는 기본적으로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돌아가서 말하기를, 그는 모든 것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어떤 시기에 무엇인가를 받게 될 상속인은 관리인과 도지사들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는 실제로 갈라디아서 3장의 끝 부분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유대인 기독교인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 그리스도까지 별개의 실체로서 이스라엘을 묶는 가정교사 역할의 필요성을 말해야 합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날까지 후견인과 관리인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는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전에 어렸을 때 유대인들은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성명. 여기에서 그는 그리스도 이전의 유대인 정체성을

자신이 권력과 권위로 회상하는 정체성과 연관시켜 유일하고 참된 신인 우주 존재에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급진적인 진술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추상적인 내용보다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한 더 어두운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우주의 노예가 된 존재로 묘사하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4절에서, 때가 차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 종살이 상태, 우주적으로 억압받는 상태로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서 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곧 유대인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은 바울이 아직도 자기 자신, 유대 기독교 선교사들, 베드로, 바나바 같은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확장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의 그림은 적대적인 우주 세력 아래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그런 상태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노예 상태에 도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J. Louis Martin, Beverly Gaventa, John Barclay 등과 같은 묵시록 해석가들과 같은 보다 최근의 갈라디아서 해석자들이

성육신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고, 죄송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최근 갈라디아서 주석서인 마틴 드보어(Martin DeBoer)가 말했습니다. 묵시적인 해석가들은 우주의 노예화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을 그 노예 상태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묵시적인 침입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들은 한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새 창조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적의 영토를 침공하는 일종의 노예 상태에 들어옵니다.

사물을 보는 일종의 강력하고 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조건과 상황에 기초하여 우리는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이러한 권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3장 끝이나 3장 중간에서 바울이 친밀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과 갖는 하나님, 즉 하나님과의 무중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는 이 초등 학문 과 저 초등 학문의 영들과 세상의 악을 주관하는 저 우주의 통치자들 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이뇨 나이가 들고 그것이 노예가 되는 존재인지 확인하십시오. 어찌하여 너희가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당신은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관찰합니다. 그건 그런데 창조 이야기인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혹시 내가 당신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이방인들이 규칙으로 돌아가고, 노예화로 향하는 방향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말했듯이, 유대인들이 유대력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노예가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 풀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유대인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축하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축하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축하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따르고 터키인, 이집트인, 시리아인 등의 고유한 방식으로 그분의 왕권을 축하하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모든 나라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성경적 신학 위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과 달과 절기와 연도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에 따라 고유한 날과 달과 절기와 연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20절로 넘어가서 이제 바울은 몇 가지 개인적인 권고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다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우리가 세운 안배를 생각해 보면 배타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났고, 이제 그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새 창조의 변함없는 현실 속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여기가 풀이 있는 곳이에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바울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현실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는 동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동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에 있는 그의 형제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떠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희와 연합하였으니 나처럼 선한 이방인이 되라. 말하자면 그는 이미 죄인이나 이교도로 간주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서 매우 개인적인 메모 중 일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Paul은 그 메모와 함께 있었던 시간을 회상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몸의 질병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원래 갈라디아를 방문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방금 돌에 맞아 죽고 소생되었으며 신체 상태가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는 단지 시체의 펀치 백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해야 할 뼈 주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시련이었던 것, 나의 모습이 당신을 시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멸시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셨습니다. 열정적인 호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졌던 축복의 느낌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 으로 너희는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고 증언하노라 .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함으로써 당신의 적이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갈라디아인들에게 그가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과의 첫 번째 방문을 기억하라는 열정적인 개인적인 호소입니다. 그는
17절에서 예루살렘 선교사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조작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열심히 찾고 있지만 칭찬할만한 것은
아닙니다.

즉, 그들은 당신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찾을 수
있도록 당신을 차단하고 싶어합니다. 즉, 유대인 선교사들은 당신들은
외부에 있다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찾아지기를 원하지만 이방인들을 차단함으로써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8절에서 열심히 구하되 칭찬할 만한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참으로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온전히 형성될 때까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의 이 부분인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는 4. 21부터
5. 1까지의 우화를 보게 됩니다. 이 우화는 모든 해석학 교수들의
골칫거리인 사라와 하갈의 우화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해석학 교수들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즉,
그는 분명히 일종의 우화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
4절에서 이것이 우화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화에 의한 일종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 내 생각에 바울이 실제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그가 본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인

구약성서의 구절로 돌아가서 이것이 실제로 여기 창세기에서 구약성서의 본문이 의미하는 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의 시대에 우리가 신학적 해석이라고 부르는 것이 시작되면서 이것은 다소 신학적 독해 또는 이 본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구약성경 본문과 그 해석을 현대적 적용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 해석이 성경 본문에 깃들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방식을 이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패턴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도전과 기회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바라시나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은 성경으로 가득 차 있고 성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의 이 상황에 대해 생각할 때 그는 좌절하고 갈라디아의 반대자들과 그곳의 청중을 향해 이러한 권고와 고발과 비난을 내놓았습니다. 사라와 하갈이 그의 상상 속에 나타나 갈라디아의 상황을 구성합니다.

그는 그것을 갈라디아의 상황에서 끌어내어 그것을 성경적 배경으로 흡수한 다음, 하나님의 논리에 따라 일을 구성하기 위해 성경 언어를 다시 말해줍니다. 이것이 신학적 해석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현대 상황과 성경 본문 사이의 벽을 허물고, 그것이 하나님의 논리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신학적 성경 읽기이며 반드시 문법적-역사적 주석은 아니지만 실제로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의 상상력을 형성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여러 연관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 이것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것은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2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내게 말하라 율법이 성경의 음성대로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기 있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노예 범주 아래에서 일종의 연합을 만들고, 자유 범주 아래에서 그는 여러 연합을 만들고, 범주 아래에서 그는 하갈, 이스마엘, 욱체, 시내 산 및 현재의 예루살렘에 대해 말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선교사들이 청중석에 앉아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선동적인 연관성입니다.

무료 카테고리에서 그는 다른 여러 협회를 만듭니다. 자유로운 여자 사라, 약속의 계열인 이삭. 또한 약속과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는 여기에 모든 자유의 꼬리표를 붙이고 싶은 곳이고, 여기에는 모든 노예의 꼬리표를 붙이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이 구약의 이야기를 갈라디아의 상황에 더해 이사야 54장의 권고를 인용하여 이사야가 말하는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 본문을 하나로 묶는 바울의 매우 창의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또 다른 성경 본문을 생각하게 합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여 기뻐하라 수고하지 못하는 여인이여 부르짖어라. 남편 있는 자보다 황폐한 자의 자녀를 더 낳느니라 형제들아, 갈라디아에 있는 너희도 이삭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때에 욱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처럼 갈라디아의 상황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유대인 선교사들을 욱신의 자녀들과 연합시키고, 갈라디아 이방인들을 영의 자녀들과 연합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에 관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 텍스트를 전달하기 위해 가져온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가 갈라디아인들을 이끌고 싶어하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자유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기 자유의 영역에 있습니다.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종의 자녀인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당신은 영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자유로워졌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은 오래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방인 여러분, 이것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바야흐로 자유의 시대이다. 다시 노예로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자유의 본질에 대해 몇 가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런 종류의 자유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현대 서구의 자유주의적 자유와 동일하다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자유의 종류는 앞서 말했듯이 거짓으로 구성된 정체성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종류의 민족성과 관련된 나의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갖는 것,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다른 기독교인으로부터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충분하지 않아서. 사실, 나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바울 신학의 더 깊은 충동이 오늘날의 기독교 문화에 매우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시청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끝없이 창의적인 미국 기독교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의성을 다양한 용어로 기독교를 포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가족을 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출판사, 이 연사, 이 마케팅 그룹으로부터 완벽한 기독교 가족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세요. 이 세미나에 가보세요. 하지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런 식으로 가족을 꾸리는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꾸리는 사람들에게 대해 일종의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고, 그 패키지를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매우 미묘하고 쉽게 생각하는 일종의 현재의 악한 시대에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세미나에 따라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내집단에 속합니까, 아니면 외집단에 속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그런 종류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를 강요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기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사는 신앙의 삶이며,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세상의 기대에 따라 실제로 항상 일어날 성령의 해방시키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직관에 어긋나다.

우리는 늘 모든 사람이 현악시대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여 형성된 상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 피조물 안으로 인도된다는 것은 내가 굳건할 때 중생일 때 성령의 해방시키는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급 백인 기독교인은 다른 사회 계층에 속한 다른 기독교인과 나란히 배치됩니다. 내가 백인 남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기 위해 히스패닉계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기독교인 옆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유입니다. 나보다 적고, 나보다 적으며, 어떤 면에서 나보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방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문화가 나의 상상력을 형성한 방식에 항상 반직관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의 다국적, 다민족 가족을 창조하시면서 행하신 일의 충만함에 거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제 생각에는 모험가가 되는 궤적에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설정하고 모든

다양한 방법과 모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 슬프게도 사회 윤리에 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문화에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윤리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문화가 하는 일이나 문화가 하는 일을 하면서 문화보다 앞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 윤리를 수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 가족에 거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Tim Gambas 박사와 갈라디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서 4:1-5:1의 6번째 세션입니다.